

『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전통어로방식, 독살 』

지리교육과 2학년 정유리

☞ 답사 포인트

- 어살과 독살에 대해 알아보자.
- 독살을 통한 체험 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름도 재미난 독살체험이란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나가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어로법으로 즉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돌그물 같은 의미로 우리나라 전통 고기잡이법의 한가지다.

물고기를 잡는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독살에 대하여 알아보자!



〈 독살체험 〉

출처: 조선일보

1. 독살이란 무엇인가

1) 독살이란

독살에서 독은 돌(石)이고, 살은 주목망¹⁾과 같은 어살²⁾이다. 독살은 물고기를 잡기위해 얕은 바다에 돌로 쌓은 담으로 일종의 돌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 어업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독살은 ‘돌살’ 혹은 ‘돌밭’이라고도 하는데 함정어구로 갯벌에 돌담을 'v'자 형태로 쌓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썰물 때 돌담에 갇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건지는 어업형태로 ‘석방렴’이라고도 하는데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목에 대나무를 엮어 세워 조류를 따라온 물고기를 가두는 죽방렴과 함께 한반도에서 가장 원시적인 고기잡이 방식이다. 독살은 바닷물이 들고 나는 조간대³⁾의 지형을 고려해 돌담을 쌓기 때문에 그 모양이 일자

1) 주목망(柱木網) : 나무 말뚝으로 입구를 고정시켜 물고기를 잡는 그물. 바다 밑에 기둥을 박고 그물을 달아서 조류에 밀리는 물고기를 받아서 잡는다.

2) 어살 : 고기가 들도록 물속에 짜리·참대·장목 등을 둘러 꽂아 둔 울.

3) 조간대 :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

서해안 일대

형, 반달형, 디근자형, 미음자형, 꺾쇠형, 젓꼭지형 등 매우 다양하다. 경사가 약간 진 곳에서는 지대가 높은 위쪽에는 돌을 낮게 쌓고, 지대가 낮은 아래쪽에는 돌을 높게 쌓아 물은 나가도록 하고 물고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



〈 독살 〉

독은 밀물 때는 보이지 않다가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드러난다. 돌담의 길이는 짧게는 30m에서 길게는 100m까지 이르기 때문에 독살의 설치를 위해서는 지리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돌을 쌓는 기술도 필요하다.

돌담을 쌓을 때는 기초가 되는 아래 부분은 큰 돌을 이용해 넓게 쌓아 올리고, 위로 갈수록 좁게 쌓는데, 쌓는 과정에서 돌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잔돌을 끼워 넣는다. 독살에 든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에는 구멍을 내고, 그 앞에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밭을 쳐놓는다.

독살은 파도와 해풍 등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해마다 한 두 번은 허물어진 돌을 다시 쌓거나 바닥에 쌓인 개펄을 퍼내야 한다. 독살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에 펴낸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황해도에 127개, 충청도에 136개, 전라도에 50개, 경기도에 34개, 경상도에 7개, 함경도에 2개가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독살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에서는 드물지 않은 어구였지만 지금은 현대적인 어업에 밀려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이다. 독살 고기잡이는 음력 2월 하순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데 송어, 꼰떡, 돔, 전어, 바닷게 등이 잡힌다.

2) 독살의 기원

인간이 만들어낸 고기잡이법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독살이다.

물고기가 먹을거리를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안고 바닷가로 온 씨족은 바닷가의 조개나 야산의 도토리·나물·버섯으로는 식구들의 배를 채우기에 충분치 않아 곤궁에 처해 있었다. 돌작살이나 뼈 낚시바늘로 잡는 물고기 정도로는 식량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쌓아놓은 원형의 돌무더기 안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물고기 두어 마리가 꺾어져서 있었다. 밀물 때 들어왔다가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들이었다. 이를 본 다음날, 해지는 아름다운 땅의 씨족들은

모두 바닷가에 모여 돌을 나르고, 쌓아 바다에는 둥그런 성이 쌓이기 시작했다.

< 읽을거리 >

태안반도 피서객 물이 시작

태안반도의 북부권 해수욕장들이 오는 주말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절정에 오른 피서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사목 전통 독살축제는 선조들의 어촌문화를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해양체험이라는 장점 덕분에 학생들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어떤 사람은 1인용 그물(일명 쪽대)을 물아가는가 하면 맨손으로 바위틈을 더듬어 고기를 잡는다. 잠시 후 쪽대와 맨손에는 커다란 광어와 놀래미가 파닥거리며 들려있다. 짜릿한 손맛을 느낀 다음부터는 피곤한 줄 모르고 신나게 뛰어다닌다. 잡은 고기는 관광객이 잡아갈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즉석에서 주민들이 회를 떠주기도 한다. 즉석에서 맛본 그 맛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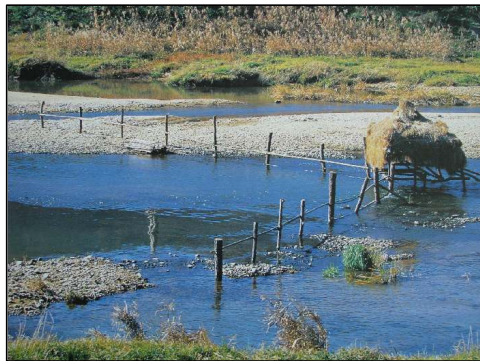
2009.7.25일자 충청일보 장영숙 기사

2. 어살과 독살

함정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어구류 어살에는 하천에 설치하는 것과 바다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의 구조와 설치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하천에 치는 어살은 하천의 흐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강제로 어살에 빠져 들어가게 하거나, 하천의 급류나 낙차가 큰 여울에 대밭이나 독을 쌓아서 가로 또는 비스듬하게 하류를 향하여 8자형으로 좁히고 그곳에 쳐놓은 발선반 위로 뛰어오른 고기를 받거나 함정부(통발, 망주머니 또는 항아리)를 이용해 잡는다. 하천에 설치하는 어살로는 가을에 바다로 내려가는 은어를 잡기 위한 은어어살이 대표적이다.

바다에 설치하는 어살의 형태는 1908년 발간된 《한국수산지》를 보면, 방사형 또는 활처럼 굽은 형태로 세운 지주에 대·갈대·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발을 치



< 재래식 어살 >

출처: 좋은 우리들

서해안 일대

고 그 중앙의 한 곳 또는 중앙 및 좌우 양쪽 날개의 각 한 곳에 함정부분 통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다에 설치하는 어살은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간석지에 설치되었으며, 어획대상은 조수에 따라 연안을 내왕하는 모든 수족이었으며 조기가 대표적인 바다어살 어획물이었다. 서해안에 설치된 어살에는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독살'이라고 부른다.

하천에 설치하는 어살과 바다에 설치하는 어살의 구조적 차이는 하천의 어살이 강제 함정어구인 데 반하여 바다어살은 퇴로를 차단하여 함정부분으로 유도하는 유도 함정어구인 점이다.

하천에 설치하는 어살로는 물흐름을 향해서 설치하는 내림통발, 흐름 아래쪽을 향하는 오름통발, 그물어살·항아리어살·흙통어살·뱀장어어살·통발어살 등이 있고, 바다에 설치하는 어살에는 지형에 따라 양날개 중에서 한쪽 날개를 없애거나, 양날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 대신 가지가 붙은 대와 나뭇가지를 조밀하게 세운 것, 함정부분에만 그물을 설치한 것 등 다양하다.

※ 참고자료

기다려서 잡는 지혜, 죽방렴

독살처럼 죽방렴은 오는 고기를 기다려 잡는 오래된 전통 어법이다. 지금처럼 바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며 남이 잡을세라 밤새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잡는 옛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죽방렴은 얇은 갯벌에 V자 모양으로 참나무 말뚝을 박고 그물을 엮어 고기를 유인해 V자 끝에 설치된 불룩한 임통(불통)에 가두어 잡는다. 어민들은 하루에 두 번씩 배를 타고 들어가 뜰채로 고기를 건져낸다. 지금의 죽방렴은 그물을 대어서 만들지만 과거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엮었다. 지역에 따라 대나무 대신 칩냉쿨이나 싸리나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는 명주그물, 나일론 그물 등이 사용되었다.



〈 죽방렴 〉

출처: 오마이뉴스

3. 맺음말

빠른 것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독살은 자꾸 밀려나고 파도에 무너지고 있다. 그나마 체험, 굴 양식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독살은 느낌의 미학

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어로방식으로 꼭 지켜져야 할 유산이다.

아무리 대형 어선이 먼 바다에서 산더미처럼 고기를 잡아들이고, 촘촘한 그물이 바닥까지 훑는 싹쓸이 어업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우리 고유의 전통어로방식을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욕심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바다를 뒤흔드는 어로로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우리 조상들의 기다림의 지혜가 담긴 독살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볼 필요가 있다.

※ 이것만은 알고가자

독살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1. '독살'에서 '독'은 무엇을 말하는가?
2. 독살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부는 하루에 몇 번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3. 하천의 어살과는 달리 해안가에서 독살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것은 바닷물의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가?

☞ 생각해보기

- 독살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과 독살을 서해안 대표 체험관광으로 홍보하고 특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 박종관 / 2005 / 박종관 교수의 Let's Go 지리여행 / 지오북
- 이우평 / 2008 / 지리교사 이우평의 한국 지형 산책 / (주) 도서출판 푸른숲

< 참고사이트 >

- 지리여행 <http://jotra.com>
- 우리문화바로알기 <http://user.chollian.net>

